

특별기고

조류독감(Avian Influenza) 이야기



김창중
수필가/본지 지문위원

AI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인구밀집지역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먹을거리 안전과 인체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 고향 포천의 양계농가와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매체 자료를 인용 항토 지역 신문인 포천신문에 제공한다. (필자: 주)

AI가 인체 감염사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등 총 14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241명이 사망하였다.(총 발생 382명 발생 2008.4 현재) 그러나 AI는 아직까지

감염성 질병의 특성 중 하나인 종간(種間) 장벽에 의해 사람에게 쉽게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한 화습장에서 발생한 AI 때문에 수많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AI의 감염이 발생하였던 나라 사람들은 가축들과 함께 살고 잠스런 환경과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AI에 감염된 조류를 만지고 놀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며 4월부터 감염 가금류에 대한 대규모 살처분에 참여했던 1만3천여명 중 1만명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함)

그렇다면 AI(조류독감)이란 무엇인가? 닭, 오리 등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 감염된 조류의 콧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며, 특히 철새들에 의해 많이 전파된다고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며 닭은 특히, 감수성이 커서 감염되면 80%이상 폐사된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35종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조류에서 AI를 잘 일으키는 H5형

이나 H7형은 원칙적으로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H5N1 인플루엔자처럼 드물게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했고 2003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23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도 충북(2003년 12월)을 성서에서 H5N1형 독감이 처음 발생한 이래 몇 곳에서 검출되었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고 한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람은 양계업자들로 사람간의 전파나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먹고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조류독감(AI)은 75°C이상 끓이면 5분후 사멸된다고 한다.(닭, 오리, 오리시) 조류독감 증세는 어떠한가? 38°C이상의 열이 오르고 기침, 목이 아프고 호흡곤란 등 독감증세가 나타난다.

지난 4월2일(수)전북 김제에서 첫 AI 발생 후 전국 30여 곳에서 AI가 발견돼 서울 광진구에서 5월6일에 이어 송파구로 발견처가 옮겨졌는데 서울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내 각 곳에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마무리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

AI가 재주를 제외하면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구에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AI는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AI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감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WHO가 AI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닭, 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감염된 닭을 닭을 취급했거나 감염된 닭과 같이 놀았거나 오리의 피, 날고기를 먹은 사람으로 밝혀졌다. 의심내면 신고하고 손으로 날것을 만지지 않고 닭, 오리와 놀지 않으며 날고기 식용은 절대금지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전염 우려도 없는데 왜 그리 많은 살처분을 했나고요? 국민보건과 질병 예방이 첫째이기 때문이다. 내 고향 포천의 철새 관리와 가금류 관리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이나 조류(가금류)취급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16만 시민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생태주의를 위한 집단주의적 행동의 문제점과, 느낌의 미학



공명수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현재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자연을 접근하는 인간의 자세가 인간중심이 아닌 자연의 입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단순한 의미에서의 자연보호의 논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통하여 삶의 방식 전부가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외경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소위 실천 환경론자들(환경정치가, 환경행정가, 환경단체)의 시선에는 심층생태학의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 환경위기에 내포된 긴박성이나 대중들의 자연 경관적 욕구를 생각할 때 지나치게 낭만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실천 환경론자들은 집단주의적 직접행동을 통해 생태주의에 대한 대중주의적 계몽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이윤논리와 국가적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주의의 개발계획에 저항하여 이를 차단하려 노력한다.

이들이 전개하는 직접적인 저항행동에는 무분별한 산림벌채, 댐건설이나 핵시설 설치, 신자유주의적 다국적 농업의 침투 등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노력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경우, 생태주의는 실천 환경론자들에게 현실개혁의 이념으로 확장되어 대중들의 의식화를 도모하고 공동체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

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사실, 심층생태주의자들은 환경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옹호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결코 이를 배제도 않고 있다. 그러나, 실천 환경론자들의 직접행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의 성급한 인식이나 행동은 산업주의나 시장주의에 기속하는 대중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천 환경론자들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여 유독성 폐기물 방지, 공기 및 수자원 오염 방지, 자연환경 영향평가, 그리고 자연경관 보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개선하려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생태주의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통하여 현실 속에 정착시키려 하거나 환경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려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생태주의의 방향이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의 모델이 되어 포퓰리즘의 논리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자연중심주의의 논리는 대중들의 삶의 질 개선욕구에 편승하여 각종 출판물이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연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려야 한다. 우리는 흐르는 느낌의 미학에 토대를 두고, 우리의 삶에 빠른 긴박성을 접목하려는 속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심층생태학에 흐르는 낭만주의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느림보 생활로의 일대전환이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근본적인 정신이 없으면, 그 일은 공허하게 되고, 곧장 원인 모를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심층생태학이 전파하는 느림보의 미학을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층생태학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이다.

미국의 환경론자 빌 디블(Bill Devall)과 조지 세션스(George Sessions)는 자신들의 저서 『심층생태학』(Deep Ecology)에서 네스의 생태주의의 논리를 한층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연을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위 말해서 실천 환경론자들이 접근하는 집단주의적 직접행동에 자연에 대한 깊은 외경심이 없으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디블과 세션스가 인식하는 심층생태학의 비전은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자각하는 것이며, 그것은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느낌의 미학의 실천운동이다.

심층생태학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조화를 각성시키는 삶의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망에 대한 충족이기도 하다. 우리는 흐르는 물에 생명을 느끼고, 날씨가 우리의 삶에 빠른 긴박성을 접목하려는 속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심층생태학에 흐르는 낭만주의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현실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심층생태학이 전파하는 느림보의 미학을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교육에세이 74

메말라 죽어가는 철쭉을 살려내는 인내로 교육에 임하자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교육대학 재학시절에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서 실습하던 시절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실과 교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고 학교의 화단 관리를 도맡아 하셨다. 방과후에는 지도교사 선생님과 함께 향나무, 회양목 삼목도 하면서 식물 재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직에 근무하면서도 재배에 대한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틈만 나면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문주란은 동료 교사의 교실에 있는 문주란에서 분주하여 직경 10cm정도의 문주란을 근 20년 가까이 기르고 있다. 해마다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는데 그윽하고 달콤한 향은 천상의 향을 무색하게 한다.

특히 문주란을 재배하면서 안 사

실인데 꽃을 피웠어도 주변에 가루 반미를 할 대상이 없으면 향을 내 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곁에 다가가도 향을 내 품지 않는데 잎자루를 건들면 향을 확 풍긴다. 식물도 종종 번식 본능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

필자는 이곳 포천에서 근무하면서 아직도 이 지역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재배하고 있는 목본류 화분을 추위에 얼려 죽인다는가, 아니면 화분을 너무 빨리 밖에 내 놓아 서리를 맞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끼던 식물이 서리를 맞아 시들어 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은 한마디로 처참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복도에 있는 철쭉 화분인데 관리 소홀히 하여 시들어 가는 철쭉화분을 관리하기로 하고 관사에 갖다 놓았는데 겨울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봄에 밖에 내 놓으니 잎사귀가 모두 말라버리고 결국 가지까지 말라버려 화원에서 오신 분께서도 이 화분은 말랐으니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철쭉에 대해서만은 신뢰하는 것이 있다. 즉, 철쭉은 완전히 말랐어도 물을 주면서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신념이다. 그래서 흠이 마르지도 않도록 물을 두들겨 가면서 바르게 키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날 필 부분을 살펴보니 파란 새싹이 돌아오고 있지 않잖나! 말라죽었다고 버렸다면 다시 볼 수 없는 감격스런 철쭉의 끈질긴 생명력은 영원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찮은 식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그 생명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시간 생물단원을 지도할 때 반드시 교수학습 목표에

서 언급해야 할 내용이 생명의 존엄성이다. 식물이 되었건, 동물이 되었건 생명을 끊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내용을 강조하지 않았을 경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할 교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교육은 늙은 부부가 오래 기다린 끝에 겨우 난산으로 얻은 아들이 잘못 했을 때 거꾸로 부둥켜안고 불기 짝을 두들겨 가면서 바르게 키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비록 일순간 여의치 않아 교육의 정도를 감지 못한 학생일지라도 인내력을 갖고 그 학생의 처지를 잘 파악하여 지도 방법을 강구하여 꾸준히 지도한다면 메말라 가던 철쭉에서 파란 새싹을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전인적인 학생으로 변신된 교육의 위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꽃샘종합식품은 1965년 이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근대화 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과학영농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축산물을 응용하여 소비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65년 7월 전업양봉 개시
- 1987년 3월 현재 1공장 신축 준공
- 1992년 7월 (주)꽃샘종합식품 법인 설립
- 1997년 9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중부 영업소 개소
- 2004년 10월 ISO. 9001-14001 인증획득
- 2005년 7월 농촌사랑 1社(村)운동 자매결연 전북 임실 두물마을
- 10월 국제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선정
- 2006년 9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12월 우크라이나 빅토르안트리오비치유센코 대통령 방문
- 2007년 5월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제 2공장 준공
- 6월 대통령초청, 우크라이나 방문 우호협력 조인식 체결

수훈·수상

- 1996년 10월 베트남 아시아 양봉학술대회전시 최우수상 수상
- 12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2000년 2월 서울특별시 표창 수상
- 2001년 11월 대한민국서탁산업진흥장 수훈
- 1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 표창 수상
- 2003년 6월 LG 유통으로부터 최우수업체 금상 수상
- 2004년 3월 국제청장 표창수상
- 2006년 2월 롯데마트로부터 감사패 수상
- 2007년 5월 상공회의소 주관, 직장인체육대회 3년 연속우승
- 5월 농림부장관 표창 수상
- 6월 인재장학회 장학금기금 포천시장 감사패 수상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 代 031)541-9921 FAX: 031)541-9933
 http://www.ksfs.co.kr